

Orient Sea - 연안당사국이 수용할 수 있는 단일명칭

한 상 복
(국립수산진흥원)

<국문요약>

우리가 동해라고 부르는 바다는 해양학적으로 북서태평양의 부속해이며 국제연합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폐쇄해로서 전체 바다가 연안 4국의 관할권으로 분할되어 공해(公海)가 없는 바다이다. 연안국의 권한이 커지고있는 현실에서 폐쇄해에서의 지역협력을 위해서는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바다이름이 나타나야 한다.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Japan Sea는 특정국가의 명칭이 있어 좋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East Sea는 육지를 중심으로 한쪽위주의 명칭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하다. 이 바다의 연안 국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이름은 첫번째로 Orient Sea이고 다음으로 Bule Sea를 생각할 수 있다. Orietn Sea가 연안국들간 협의에 의해 채택될 경우 우리는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동해로 쓰는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억지로 동방해라 할 필요는 없다. 하나의 좋은 바다 이름을 결정하기 위해 건설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각종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